

## 교육의원제 4년뒤 폐지

### 교육자치법 시각 의결...올해만 직선으로

#### 다음선거부터 교육경력 없어도 교육감 입후보

여야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만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를 위한 교육경력 5년으로 완화했으며, 당직 보유 금지기간도 1년으로 줄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 〈관련 기사 3편〉

하지만 '일몰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육자치 존재 논란까지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위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단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직보유 금지기간도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5년 미만 경력자들의 입후보가 원천 봉쇄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이 전국 시·도 교육감에 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8일이나 넘겨 처리되면서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그동안 교육위원을 주민직선(민중당)으로 뽑을 것이냐 정당 공천비례(한나라당)로 뽑을 것이냐를 두고 대립해 왔는데, 해결 기미가 없자 이처럼 기형적인 절충안이 등장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렇다면 이번부터 없애지, 왜 세금 낭비를 하느냐"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시골마을 방앗간 북적

10일 광주 남구 학동동의 한 방앗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막 쌓여진 가래떡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뜻하기만 하다.

10일 광주 남구 학동동의 한 방앗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막 쌓여진 가래떡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뜻하기만 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국측·국내은행들, 신뢰 갖기 시작했다

# 무안 한중산단 PF 참여 착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빠르면 오는 2월 중에 금융기관의 투자방향서(LOI)가 발급되는 등 지체되던 무안 기업도시 한중산단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중산단 건설을 추진 중인 '한중미래도시(주)' 측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과 우리은행·국민은행 등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3월께 투자방향서(LOI)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미래도시 측은 또 이 투자방향서를 통해 무안기업도시에 투자할 중국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 상반기 중 금융기관과 금융자문사간 계약을 체결한 뒤 적정한 절차를 거쳐 PF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의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토지 매입도 가능할 것으로

한중미래도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비틀거리던 한중산단 건설이 최근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무안군과 한중산단 투자사업에 대해 중국과 국내 금융기관이 신뢰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감자'와 '올초 한중국제 산업단지개발에서 한중미래도시로 회사 개명 이후 교체된 새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을 방문, 상무부·중국국가개발은행·중경시정부 관계자를 만나 감자가 사업 축소가 아니고 단계별 사업을 선택한 것 이란 점을 설득, 중국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국의 한중산단 건설 의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국내의 대표적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를

요구해 왔으며 감자에 대해서도 사업 축소를 위한 수순으로 이해하는 등 각기 다른 양국의 투자 행태를 이해하지 못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들도 최근 접착 과정에서 감자의 의미에 대해 오해를 풀고 전체 17.7km(536만평) 가운데 300만평(산업단지 150만평, 국제교육단지 150만평)을 우선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형지 공급 혜택으로 사업비가 줄고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국과 국내 금융기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한중미래도시 측은 분석했다.

한중미래도시 이재원 대표는 "중국 상무부와 중경시 정부가 한중산단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과

협조할 뜻을 표명했다"며 "또 중국 우수 대학과 국내 5대 사립학교에서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병원의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한중산단 건설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실업자 1년새 광주 53%·전남 60% 급증

### 전국 10년만에 100만명 넘어 121만여명

공식적인 실업자가 10여년 만에 전국적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전남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3~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월 광주·전남권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난달 실업자 수는 3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9%(1만1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1.5%포인트 상승한 4.7%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60.2%(1만3천명)나 늘었으며 실업률은 3.8%로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난해 말 끝났지만 관련 예산의 누락과 1월에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된데다 지난 1월 회계근로와 청년인턴 모집을 시작하면서 구직활동 인구가 늘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광주는 취업자 수가 64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3%(1만5천명)가 증가했지만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남도 취업자 수가 86만8천명으로 4개

월째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121만6천명의 실업자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천명이나 증가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1년 3월(112만9천명) 이래 8년10개월 만이며, 규모로는 2000년 2월(122만3천명) 이후 9년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5.0%로 전년 동월보다 1.4%포인트나 올라 2001년 3월 5.1%이래 가장 높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을 말한다.

## 주주님께 제 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시: 2010년 2월 26일(금) 09:00
- 2. 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③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① 제 1호 의안: 제42기(2009.1.1~2009.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1주당 지급 예정인 연도별 배당금: 6,500원 (중간배당금 1,500원 포함) 연간 총배당금 8,000원
- ②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③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상임)이사 선임의 건

(사내(상임)이사 후보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회사의외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의의 관계	임기
박한용	'51.4.13	(현) 포스코ICT 대표이사 시장 포스코 전무 포스코 상무	없음	없음	2년
	'52.11.11	(현) 포스코 부사장 (이케팅부문장) 포스코 전무 포스코 상무	없음	없음	2년
김진일	'53.2.1	(현) 포스코 부사장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전무 포스코 상무	없음	없음	2년

④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명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명 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및 지점,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명외계서대행회사)에 비치하고 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방법

-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직접참석  
- 본인의 직접참석: 참석장,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참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은 별도로 송부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포함된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서면 투표용지에 안전 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일 전일 까지 회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집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 (1) 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하고 계신 실집주주께서는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를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에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신 후 우편, 전신(FAX) 또는 방문(전화는 불가능)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까지 한국에타결제원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만약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하여 한국에타결제원이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주식수(서면투표의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수 포함)에서 한국에타결제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께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서면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서면 투표하신 경우 포함)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때는 한국에타결제원은 주주님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유하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행사(서면투표 포함) 또는 대리행사 하시거나 하는 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결권의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3)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주소: (150-9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번지 한국에타결제원 '실집주주의 의사표시 담당자 양'  
FAX: (02) 3774-3244 ~ 5

###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에타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0년 2월 26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제42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집주주번호	직접행사	의사표시	불행사
주인(사명)자 등록번호			
의결권주식수			

실집주주 성명: (인) 2010년 2월 일

\*주주참석 시 주주확인을 위하여 참석장,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